



2023 IMPACT REPORT

공익법센터 어필

“억울한 외국인 곁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짓다”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Brian Impact** 가 함께 합니다



 **Brian Impact**

 **APIL**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사회가치평가**
KOREA SOCIAL VALUE ASSESSMENT

2023 IMPACT REPORT

공익법센터 어필

“억울한 외국인 결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짓다”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 행 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 행 일 2024년 4월

발 행 인 박승기

이 메 일 contact@brianimpact.org

홈 페이지 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기부 선언과 함께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과학 기술 영역에서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IMPACT REPORT

공익법센터 어필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1
02	공익법센터 어필 소개	5
	> 미션 및 비전	6
	> 주요 사업	7
	> 활동 방향	10
	> 주요 연혁	12
03	공익법센터 어필 임팩트 프레임	15
	> 사회문제	16
	> 임팩트 프레임워크	18
	> 임팩트 지표	19
04	임팩트 측정 결과	23
	> 임팩트 하이라이트	24
	> Impact 1.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다	25
	> Impact 2. 난민,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29
	> Impact 3.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다	34
05	미래비전	37
	부록: 인터뷰	41

01 **임팩트 리포트 소개**



> **임팩트 리포트 소개**

공익법센터 어필 임팩트 리포트는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제시합니다. 법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등의 자리와 권리를 찾아준 성과를 측정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성과 및 변화의 정의, 측정, 검증은 임팩트 측정 전문기관인 한국사회가치평가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리포트에 담긴 공익법센터 어필의 사회성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에 기초하여 연구하였습니다.

✓ **2013년~2023년 동안의 성과 측정**

설립 이후 2023년까지의 활동 성과를 담았습니다.

✓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변화지점을 기준으로 성과 정리**

활동이 만드는 수혜자 편익, 변화자본의 축적, 사회주체의 변화를 성과로 정리하였습니다.

✓ **활동이 만든 실질적인 변화를 성과로 측정**

각 사업·활동의 산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변화(Outcome-Impact)를 분석하였습니다.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

성과에 따라 수치, 비율 등을 사용하는 정량적 방법과 인터뷰, 개방형 설문, 서술 등의 정성적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02 공익법센터 어필 소개

- ▶ 미션 및 비전
- ▶ 주요 사업
- ▶ 활동 방향
- ▶ 주요 연혁

> 미션 및 비전

□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취약한 인권을 옹호

공익법센터 어필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사회 **이주민들의 취약한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방지하는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 왔습니다. 공익변호사들로 구성된 어필은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법원 등에 대한 신청 및 소송 지원을 통해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을 지원하며, 입법운동, 국내 인권단체와의 연대 활동, 인권옹호 교육 등 '환대의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정의 실현

어필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환대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어필은 11년 간의 활동기간 동안 법률 조력 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왔습니다. 또한 후원자, 자원봉사자, 동료 인권단체와 함께 부당한 차별에 저항하고 연대하며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 지원 활동 과정에서 법률 조력의 핵심 활동 인력이 지치지 않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션	모두의 인권 보장의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사회				
비전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와 자리를 찾아주는 공익법센터				
전략목표	사건이 아닌 사람을 마주하는 공익법센터	보이지 않거나 침해 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공익법센터	정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력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공익법센터	취약한 외국인에 대한 연대와 공감의식을 이끌어내는 공익법센터	구성원이 행복한 공익법센터
핵심가치	사람중심	법적 전문성	체계성	연대	지속가능성
함께하는 사람들/기관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 상근 변호사 협력 변호사 인턴/로스쿨 실무수습생 자원 봉사자 인권단체/통번역 네트워크 후원자/후원기업 인권옹호 지지 시민				

> 주요 사업

공익법센터 어필의 주요 사업은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이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운 신청 및 소송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어필은 변호사이자 연구자, 활동가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며, 개별 법률 조력 외에 연구 및 입법운동, 인권옹호 연대 활동,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해왔습니다.

✓ 법률 지원(신청, 소송 등)

□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 무료 변호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은 이주민, 그 가운데에서도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입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공정하게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어필은 **까다롭고 어려운 난민 소송 등에 법률 전문성을 활용하여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을 무료로 변호**합니다.

법률 지원 세부사업 및 사업 제반



AP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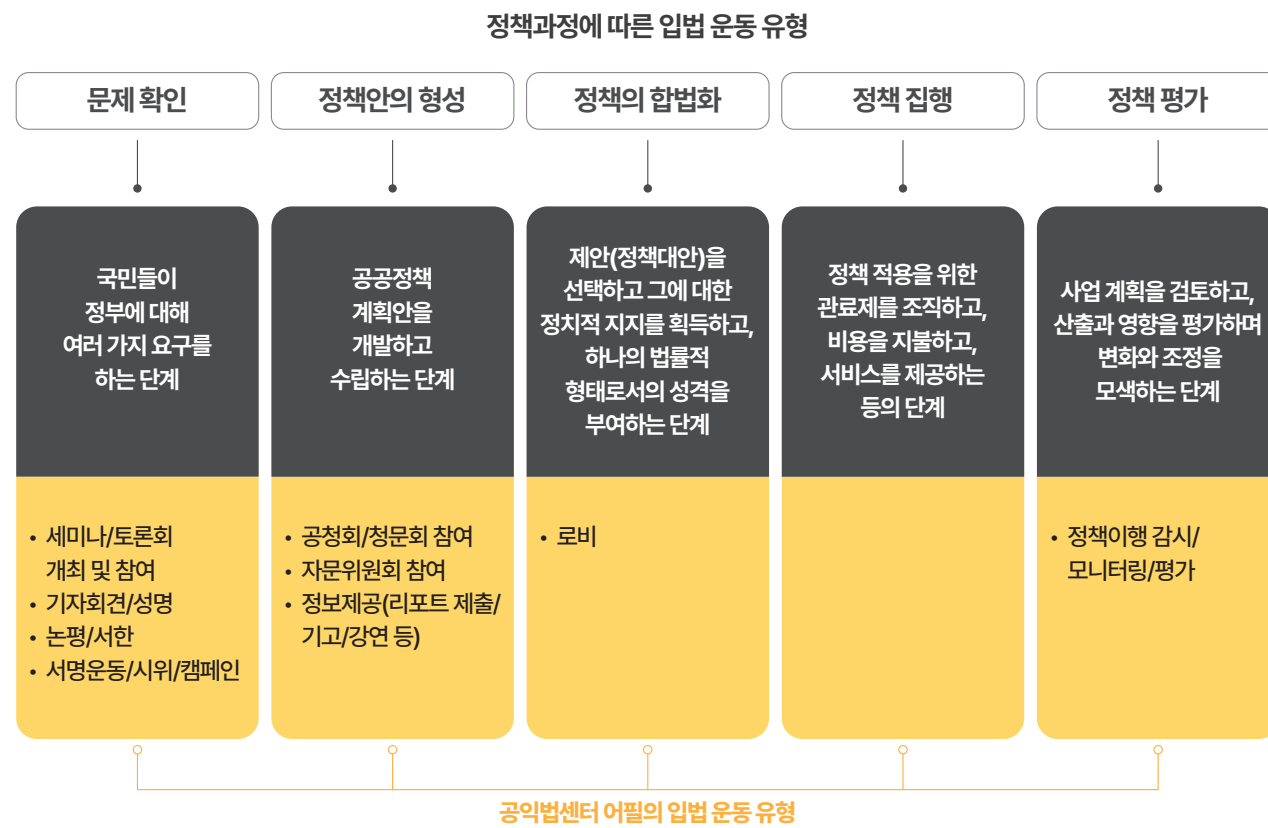
✓ 연구 및 입법 운동

□ 인권침해 상황 연구 및 관련 보고서 발간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이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과 인권 사각지대를 연구하고 발표하여 그들이 절차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생산합니다.

□ 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난민인정절차 개별 사건 조력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 정책과정은 다이(Thomas R. Dye)의 공공정책의 과정 5단계 모형을 준용

✓ 인권옹호 연대 활동

□ 부당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연대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의 공백과 시민단체가 수적으로 열세한 열악한 조건에서도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연대 활동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사례를 만듭니다.

개인, 단체/네트워크 단위와의 연대활동 유형



✓ 교육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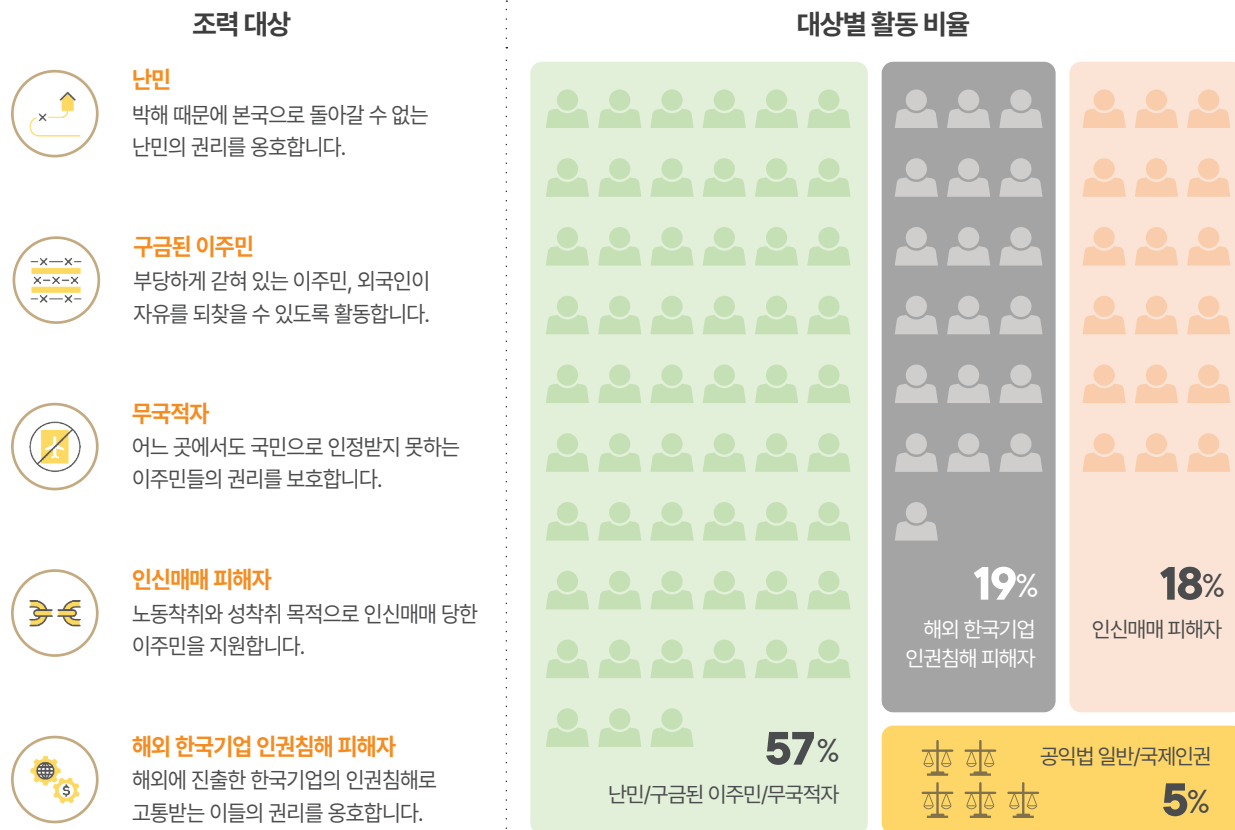
□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 증진 교육과 캠페인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대학생과 로스쿨생, 이주민과 외국인을 상대하는 검사와 출입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의와 시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활동 방향

□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활동

어필은 옹호하는 이들은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 자유를 빼앗기고 부당하게 구금된 이주민, 나라가 없는 무국적자, 성·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이주민 피해자와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지지 않은 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입니다. 어필은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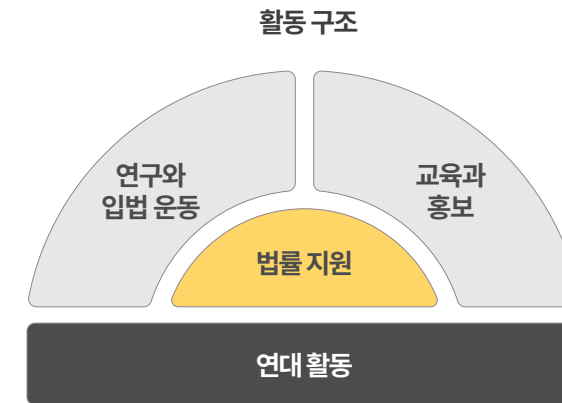
□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에게 단계적인 조력 서비스 제공

어필의 주요 지원 대상인 난민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단계부터 법원까지 최대 4~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행정·사법 절차를 경험합니다. 어필의 공익변호사들은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문제에 대해 전업으로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 경험하는 긴 행정과 사법 절차의 여러 단계에 있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분절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을 전인격적 존재로 인정하고 관계 맺으며 활동합니다.**

□ 개별적인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에서 얻은 통찰을 연대를 통해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개별 솔루션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주민, 난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적대의 감정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필은 개별 조직의 솔루션보다는 **문제 해결에 공감하는 다양한 개인과 조직의 연대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합니다.**

앞서 소개한 주요 활동(법률 지원, 연구 및 입법운동, 연대 활동, 교육과 홍보)은 사회문제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동합니다. 어필은 **연대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개인, 단체, 네트워크와 협력하며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개별사건 조력 과정에서 인권의 사각 지대와 이주민, 외국인 보호 정책 및 서비스의 공백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인식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운동을 병행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취약한 외국인과 이주민들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한국기업이 진출한 해외 지역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 가능하도록 사회 자본과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 주요 연혁



03 공익법센터 어필 임팩트 프레임

- ▶ 사회문제
- ▶ 임팩트 프레임워크
- ▶ 임팩트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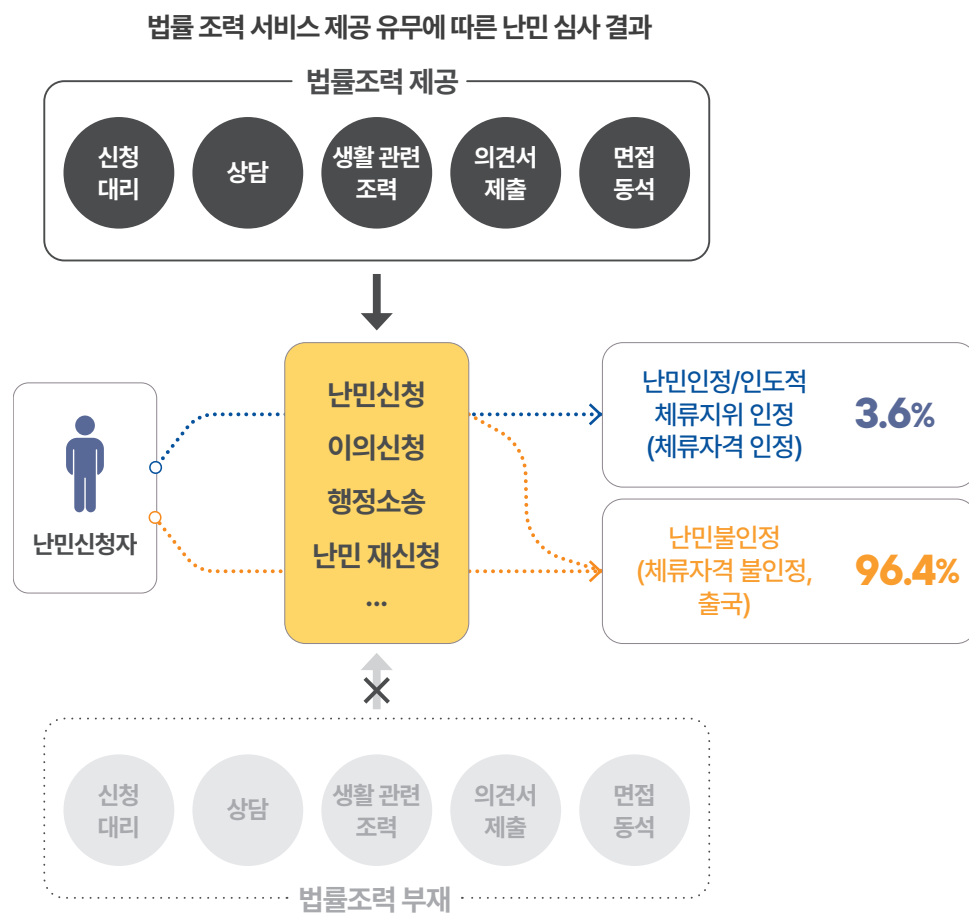
사회문제

□ 불안정한 난민/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와 인권 보장의 범위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법을 시행했습니다. 외국인과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아시아 중에서도 소위 단일문화권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한국에서 난민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였습니다.

전쟁과 무력 분쟁, 정치적 박해, 종교의 자유 탄압 등의 이유로 난민이 되어 고향인 본국을 떠나 국경을 넘는 숫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국을 찾는 난민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정 이후 난민 보호에 관한 의지와 실질적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미래지향적 이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인색한 **난민보호율 3.6%**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평균 난민보호율 33.4%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을 찾은 난민들은 대부분 법률 조력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며 난민신청 및 소송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인권단체를 통해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은 난민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구금되거나 추방**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며, 취약한 상태에서 노동과 생활을 이어가고 구금과 강제추방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체류와 처우가 연계되는 우리 출입국 체계에서 난민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체류를 인정받지 못하는 난민들은 노동, 교육, 주거 등의 권리의 보장을 약속받지 못한 채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 장영욱(2023), 글로벌 불평등 시대의 난민과 이민자. GLOBAL ISSUE BRIEF(경제·인문사회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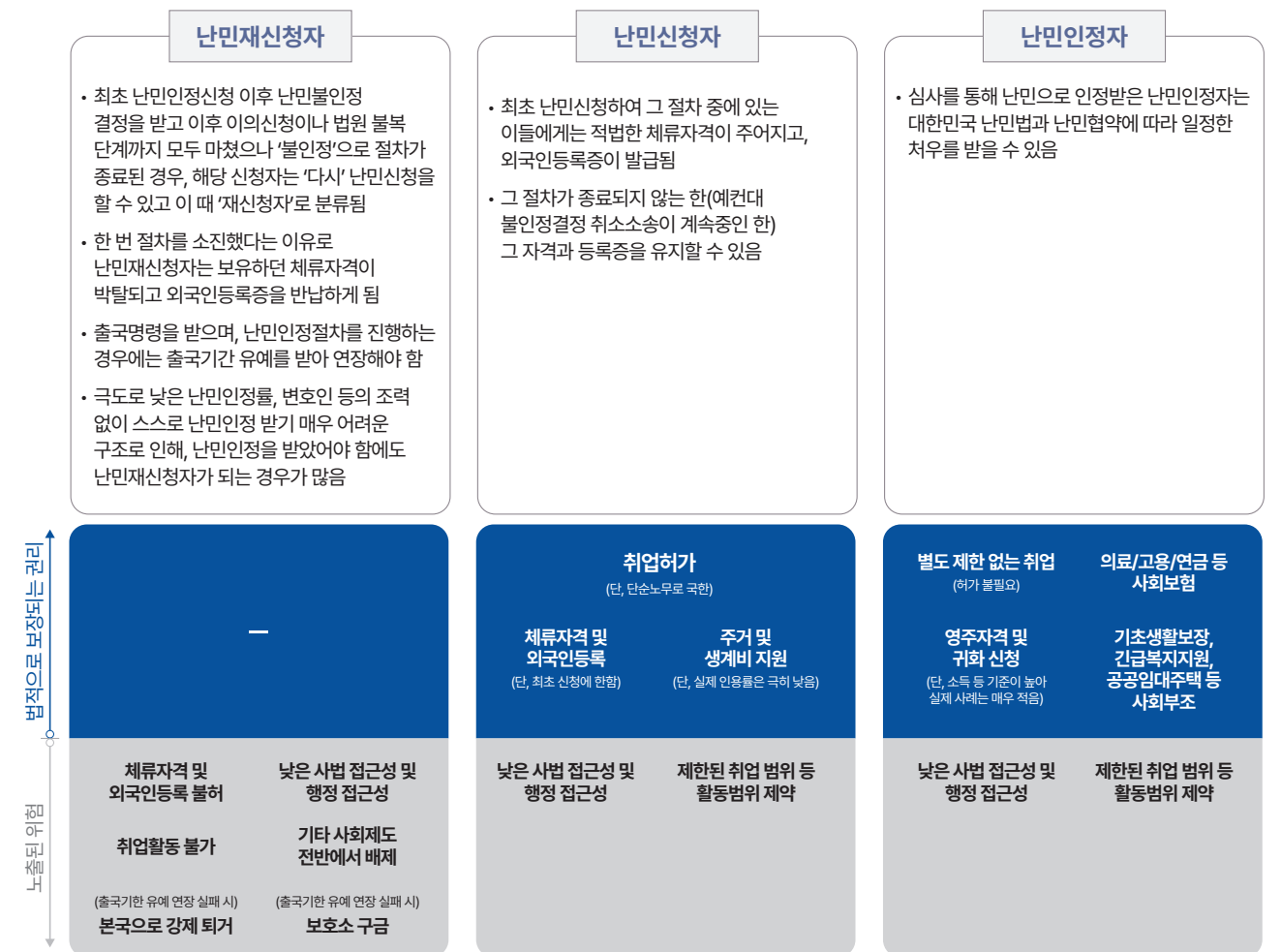
□ 난민신청 과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부족

난민인정 여부가 난민 처우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한국에서의 난민인정 절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행정 절차부터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를 총괄하는 시스템이 난민심사 인력과 전문성, 통번역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각 절차상 결과가 담당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난민 사유에 큰 변화가 없었던 난민신청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를 통해 난민 심사과정 중 1차, 2차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².

□ 불필요한 구금,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로 연결되는 이주민, 외국인의 불안정한 체류

한국사회에서 **보호대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주민, 외국인**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 기반에서 **생활하며 안정적인 법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기본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금의 필요가 없는 지위지만 장기 구금되기도, 미등록 상태에서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마주하기도,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 조건에서 근무하게 되기도 합니다.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노출되는 위험과 보장되는 권리



2 난민인권센터(2024), 한국사회의 난민인권보고서

▶ 임팩트 프레임워크

□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 개인과 관련 사회자본, 정책/제도 단위로 다각적 접근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주민과 외국인을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도록 방치하는 문제를 개인과 사회자본, 정책/제도의 단위로 접근합니다. 이주민, 외국인의 낮은 법률 서비스 접근성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 이주민 및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속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자본 부족의 문제, 문제상황에 비해 더딘 정책/제도의 변화, 조정 속도의 문제를 연대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으로 해결합니다.

임팩트 프레임워크



▶ 임팩트 지표

✓ 임팩트 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은 수혜자 삶의 변화, 사회 생태계와 사회주체 전반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필의 활동으로 인한 수혜자의 편익, 변화자본의 축적, 사회주체인 정부의 정책/제도의 변화를 임팩트로 정의하였습니다. 어필의 활동을 창출하는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활동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팩트만 측정하며 그 외에 창출되는 부수적인 성과는 측정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의 실제적인 결과(output)와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의 성과(outcome)를 임팩트와 연결하여 결과 중심의 임팩트 체계를 도출하였습니다.

Activity	Output	Outcome	Impact
연대 활동			개인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사회자본 난민, 이주민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책/제도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
- 난민, 이주민 지원 생태계 이니셔티브 주도(네트워킹) - 협력 변호사, 인턴, 자원봉사자, 후원자 참여 활동 기획 및 운영	- 난민, 이주민 지원에 다양한 자원 동원 - 난민,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장 형성	-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난민, 이주민 지원효율성 증진 - 연대의 장 확대	
법률 지원	- 난민, 이주민 인권침해 상황 파악 - 법률 조력 -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 신청의 인정, 승소 (난민인정/피해인정) 등 - 인권 옹호 선례 및 관행의 축적 - 내부 법률 조력시스템 체계화	
연구와 입법 활동	- 연구/모니터링 -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자문위원회 참여 - 로비 등	- 정책 모니터링 - 정책의제 발굴 - 정책대안 형성	
법률 지원			개인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사회자본 난민, 이주민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책/제도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
- 난민, 이주민 인권침해 상황 파악 - 법률 조력 -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 신청의 인정, 승소 (난민인정/피해인정) 등 - 인권 옹호 선례 및 관행의 축적 - 내부 법률 조력시스템 체계화	-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 권리복원 - 난민, 이주민의 정서·심리적 안정감 향상 - 판례 축적을 통한 인권옹호 법률지원활동 효율성 증진	
연구와 입법 활동	- 연구/모니터링 -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자문위원회 참여 - 로비 등	- 정책 모니터링 - 정책의제 발굴 - 정책대안 형성	
교육과 홍보	- 연구/모니터링 -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자문위원회 참여 - 로비 등	- 정책 모니터링 - 정책의제 발굴 - 정책대안 형성	
교육과 홍보			개인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사회자본 난민, 이주민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책/제도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평화로운 사회
- 난민, 이주민 인권옹호 교육 - 난민, 이주민 인권 옹호 캠페인	- 난민, 이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 - 난민, 이주민에 대한 공감 경험 지원	- 난민, 이주민에 대한 시민 관심도 향상 - 난민, 이주민 인권 감수성 향상	
연구와 입법 활동	- 연구/모니터링 - 세미나/토론회 개최 및 참여 - 자문위원회 참여 - 로비 등	- 정책 모니터링 - 정책의제 발굴 - 정책대안 형성	
법률 지원	- 신청의 인정, 승소 (난민인정/피해인정) 등 - 인권 옹호 선례 및 관행의 축적 - 내부 법률 조력시스템 체계화	-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 권리복원 - 난민, 이주민의 정서·심리적 안정감 향상 - 판례 축적을 통한 인권옹호 법률지원활동 효율성 증진	



✓ **임팩트 지표**

변화지점	핵심 성과	지표
개인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법률 서비스 제공량 증가 • 법률 조력 기반 구축 • 법률 서비스 질 제고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권리복원	• 난민인정/소송승소/진정서 처리 건수 • 수혜자 정서적 안정감 향상
사회자본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 (법률지원체계)	• 인권옹호 선례 및 관행의 축적 • 법률 조력 역량 강화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 (인권옹호자)	• 인권옹호 이해관계자 수 증가 • 인권옹호 이해관계자의 사회참여 수준 향상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 (협력관계)	• 인권옹호 네트워크 확대
정책/제도	정책/제도 개선	• 인권침해 실태조사/모니터링 연구 생산 • 정책변화 및 제도개선 기여



04 **임팩트 측정 결과**

- 임팩트 하이라이트
- Impact 1.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다
- Impact 2. 난민,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 Impact 3.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다

▶ 임팩트 하이라이트



연구와 입법 활동

101건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336건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옹호를 위한 입법 운동

교육과 홍보

136건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옹호 관련 교육

17,706건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옹호 캠페인 누적 참여자

연대 활동

2,360명
누적 후원자
* 2013년 대비 2022년까지 누적 증가율 334%

634명
누적 자원봉사자
* 2014년 대비 2022년까지 누적 증가율 2782%

5개
인권옹호 협력단체/네트워크

9년
인권옹호 협력단체/네트워크와
협력활동을 유지하는 평균 기간

▶ Impact 1. 억울한 외국인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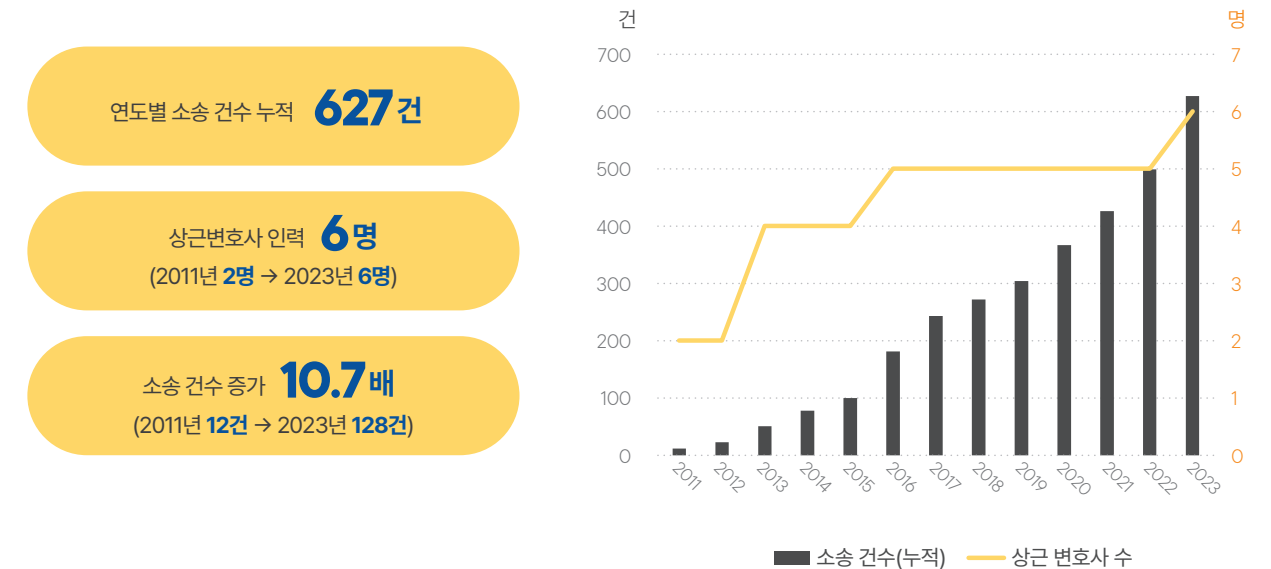
✓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법률서비스 제공량 증가

어필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4~5년의 긴 난민신청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난민 보호, 인정에 인색한 국내에서 난민심사의 지난한 과정을 법률 조력없이 거치고, 안정적인 난민 지위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은 난민만이 지위를 얻고, 지위를 얻지 못한 난민들은 불안정한 지위로 한국에 머물거나 구금, 추방됩니다.

법률 조력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필은 법률 조력을 통해 난민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1년 2명의 상근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어필은 2023년 6명의 상근 변호사와 2명의 행정 및 운영팀장이 함께 일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난민을 비롯한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전업으로 집중 법률 조력을 함으로써 어필에서 담당할 소송 건수는 2011년 12건에서 2023년 128건으로 10.7배 증가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소송 건수(누적)와 연도별 상근변호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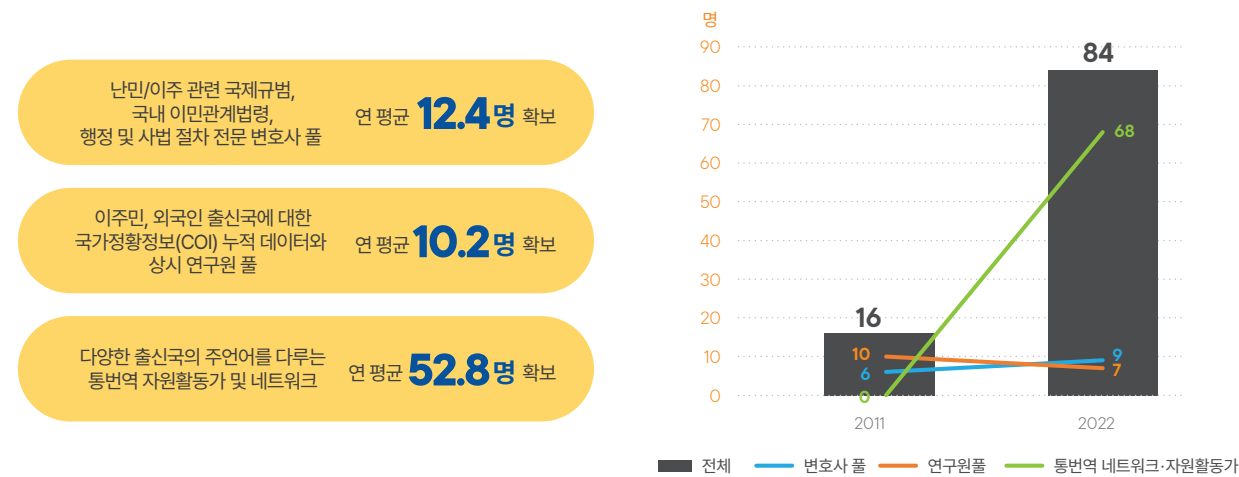


□ 법률 조력 기반 구축

어필은 효과적인 법률 조력 활동을 위해 변호사, 연구원 및 인턴, 통번역 자원활동가를 확보해왔습니다.

법률, 제도, 규범 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뢰인을 응대하고 외국인 출신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송을 조력하는 연구원과 인턴, 숙련된 통번역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법률 조력 기반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필이 만들어 온 조직적인 조력 모델과 상근 변호사의 헌신적인 투입은 조력 난이도가 높은 난민법 조력 환경에서 **난민지위인정의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 활동 제반(인력) 구축 성과



□ 법률 서비스 질 제고

어필이 구축한 법률 조력 활동의 제반은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난민 법률 조력에 필요한 인적·지적 자원의 확보와 축적은 난민을 난민신청의 여러 과정 중 분절적으로 만나고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사람 중심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법적 지위를 신청하고 얻게 되는 과정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어필이 제공하는 조력의 효과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법률 조력 경험에 따라 어필은 난민심사 과정의 심사 과정 중 가장 전문성과 진정성이 담보되는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부터 조력하는 전략을 활용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출입국 단계보다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에 신중하게 조력하여 최대한 빠르고 성공적으로 난민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필은 난민심사과정의 각 단계와,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가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사례, 관련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체류허가) 획득 관련 법률 조력 단계

1) 난민신청 과정 관련

구분	신청 및 소송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1차 심사
법무부	이의신청
법원	행정소송 난민재신청

2) 체류 관련

구분	신청 및 소송
외국인보호소	보호일시해제신청 출국명령취소소송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교도소/구치소	권리구제소송
기타 체류자격 비자 불허	체류자격비자 연장 조력

집중 조력

✓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구제/권리복원

□ 이주민, 외국인의 권리 복원: 난민인정/소송 승소/진정서 처리 등

어필은 법률 조력으로 법원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 취소를 받거나 출입국 또는 난민위원회의 난민인정결정 (또는 인도적 체류 지위 결정)을 받는 등 난민과 인도적 체류 지위에 관한 인정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및 보호 명목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일상생활(노동, 출생신고 등)에서 인권이 침해 되는 경우 관련 신청과 소송, 진정제기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 사례의 경우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국내 난민인정사례 대부분이 도출되고 있으며 난민인정 법리에 있어 선도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23년 난민신청 과정 관련 성과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난민심사자격조사에서 심사 불회부결정을 받아 송환 또는 공항에서의 무기한으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제, 난민신청의 단계로 회부	15명 승소
난민위원회 난민인정신청	난민으로 인정	3명 인정
법원단계 행정소송	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 난민으로 인정	12명 인정

□ 권리복원 이후 이주민, 외국인의 정서·심리적 안정감 향상

어필이 만난 이주민과 외국인은 성공적인 법률 조력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도 정서적 안정감과 희망을 체감합니다. 난민신청사유-박해사유에 대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려는 말을 번역해주지 않는 상황이나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조사관의 태도로 낙담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어필은 난민을 비롯한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통해 그들을 환대하고 옹호합니다.

난민 신청과 보호소 구금 해제를 도와주는 어필의 변호사, 아시아의 친구들(비영리단체)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난 거죠. 그 희망 덕분에 이민국 절차를 버틸 수 있었어요. 어필을 만나서 정말 힘이 많이 됐어요. 난민 신청 절차를 거쳐보니 출입국 직원들은 외국인들이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짜 난민' 취급을 받는 것은 괴롭지만 잘 될 거라고 조력해주는 어필이 있어서 정신을 다잡았어요.

비아프라 국적 난민신청자 A

가끔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힘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 난민신청자 B

법을 통해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 옹호활동을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결과에 낙담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과 활동 예산 부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에 대한 정부와 시민 인식과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난민들의 처절한 이야기와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 더 크게, 몸부림치며 외쳐야 할 순간”은 계속해서 어필을 찾아옵니다. 어필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채 사라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필의 이러한 활동 기조는 법률 조력 이후에도 이주민과 외국인이 어필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 Impact 2. 난민,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다

✓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법률지원체계)

□ 인권옹호 선례 및 관행의 축적 및 법률 조력 역량 강화

어필은 난민법, 이민관계법령 등 이주민과 외국인의 권리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국내법이 인권 옹호의 방향으로 적용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례를 축적합니다. 이를 통해 난민 처우에 대한 국내법을 적용하는 출입국과 법무부 등 국가기관의 인권옹호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 저변을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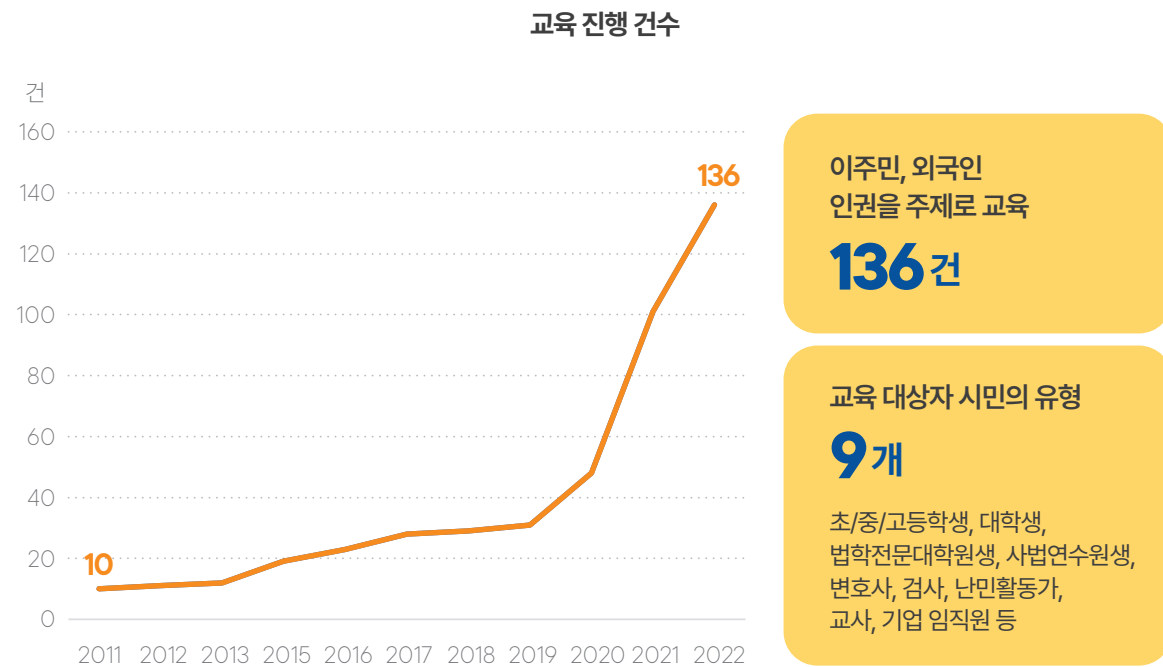
2023년에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일명 공항 난민)의 난민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율을 8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외부 조직들이 공항 난민 사건 구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 포함) 대상 공익법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판례를 축적하며 이주민, 외국인 인권옹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인권옹호자)

□ 인권옹호 이해관계자 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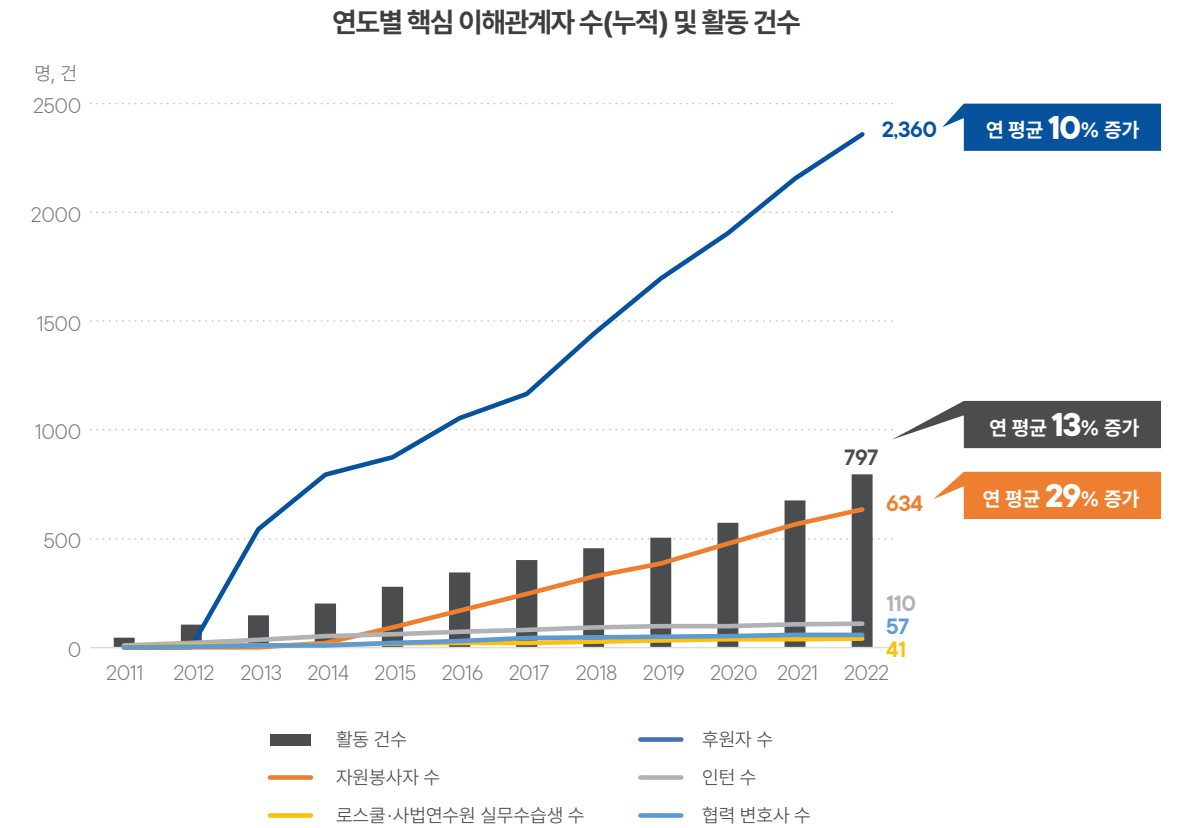
어필은 시민사회와 정부 공무원, 지역사회 등이 협력하여 공익법활동을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22년까지 9개 유형의 시민, 공무원, 지역사회 대상자(그룹)에 누적 136건의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 진행을 통해 취약한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한 누적 17,706명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 캠페인별 참여자 수



어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인턴/로스쿨 실무 수습생(예비법조인) 등의 수적 역량도 연도별 활동 건수와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자원봉사자 29%, 활동 건수 13%, 후원자 10% 순이며 연평균 후원자 증가량보다 공익법활동 증가량이 더 높게 나타나 인권옹호 이해관계자의 수 증가에 비례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권옹호 이해관계자의 사회참여 수준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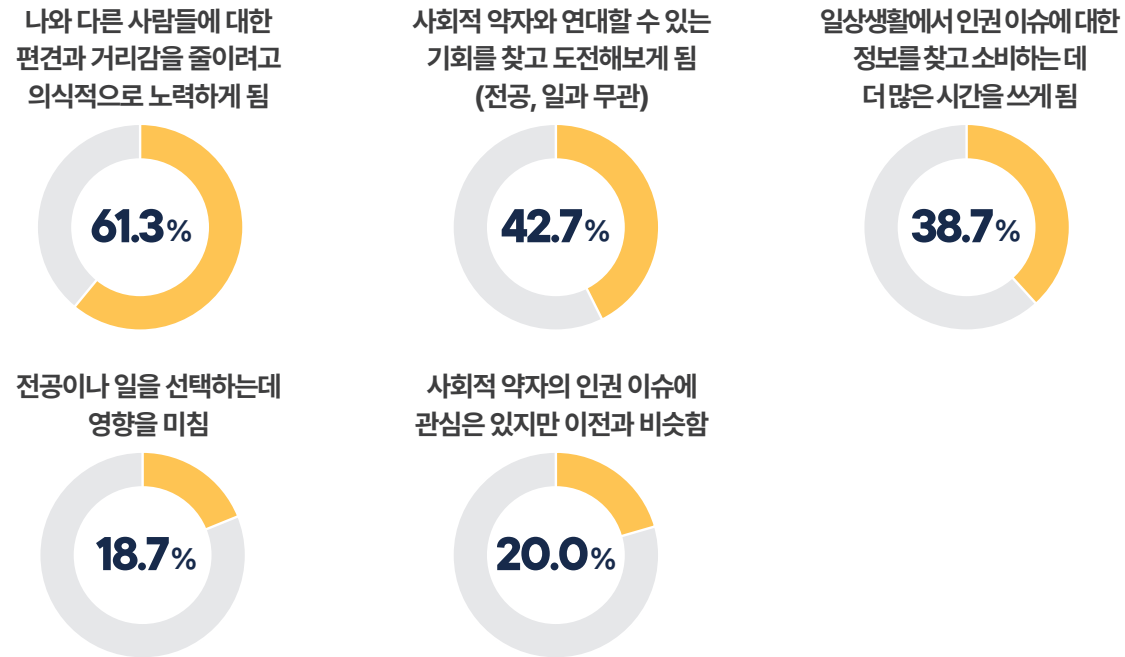
어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후원자, 자원봉사자, 인턴/로스쿨 실무 수습생(예비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은 어필에서의 활동 경험을 통해 난민,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개요]

대상	공익법센터 어필 후원자/자원봉사자/구독자/알umni(75명 응답)
조사 내용	공익법센터 어필에서의 활동 현황 및 경험 등
방법	온라인 설문 진행
기간	2024. 3. 13.~3. 19.(7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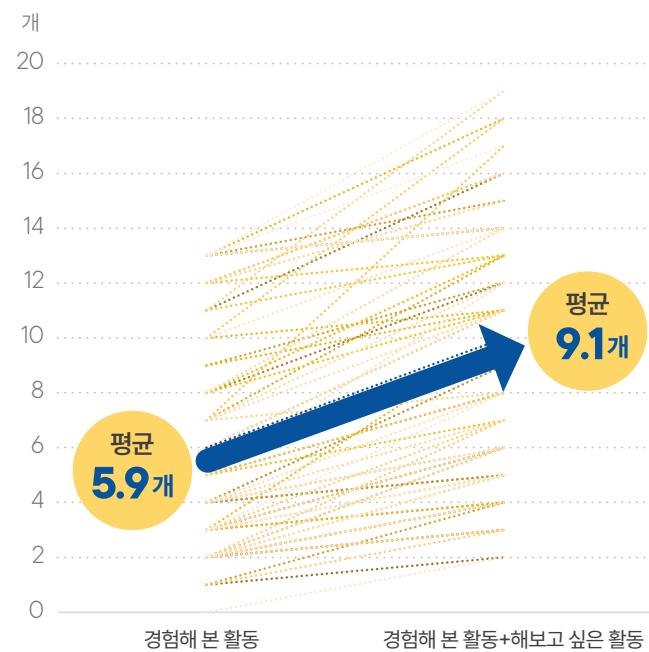
난민/이주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태도와 방식의 변화

Q. 공익법센터 어필에서의 경험이 난민/이주민 인권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n=75, 중복선택 가능)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한번이라도 경험한 활동(과거 1년 기준)과 앞으로 어필에서 또는 어필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의 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에 경험한 활동 평균 5.9개에서 앞으로 해보고 싶은 활동 9.1개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이해관계자들이 **평균적으로 향후 3.2개의 인권옹호 활동에 더 참여하려고 하는 참여의 적극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참여 활동과 향후 참여 의지가 있는 활동 수 비교 (n=75)



어필을 통한 생각이나 태도의 변화

Q. 공익법센터 어필을 통해 난민, 외국인 인권 문제에 대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나 태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기술해주세요.

(어필을 통해 난민을) 단지 시혜적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환대의 관점으로 대하는 언어와 태도, 배려를 배웠습니다.

난민과 이주민을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어필을 통해 난민 이슈를 알게 되었고 난민, 이주민이 사회에서 함께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인권옹호 생태계 저변 확대(협력관계)

□ 인권옹호 네트워크 확대

어필은 국내의 이주민, 외국인 인권침해 문제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며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현재(2024. 3.)까지 5개의 주요 네트워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각 네트워크와의 평균 협력 기간은 9년으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이주민, 외국인 지원 활동을 강화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협력 네트워크(옹호 대상별)



공익법센터 어필 협력 네트워크와의 연도별 협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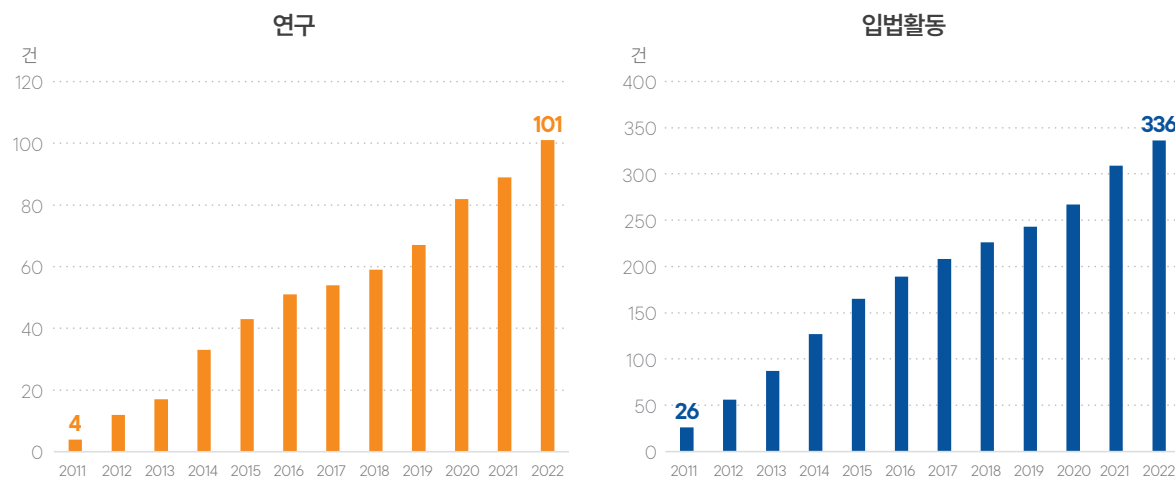
Impact 3. 난민, 이주민의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다

✓ 정책/제도 개선

□ 인권침해 실태조사/모니터링 연구 생산 및 정책활동

취약한 이주민, 외국인의 취약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필은 인권 사각지대를 연구하고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적 지위의 불안정이 인권과 처우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이주민, 외국인이 절차대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되고, 나아가 법적 지위가 보장되기 전에도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필은 공익법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인권옹호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다양한 입법운동에 참여하며 보다 인권친화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을 이끌어왔습니다.

연도별 연구와 입법 활동 누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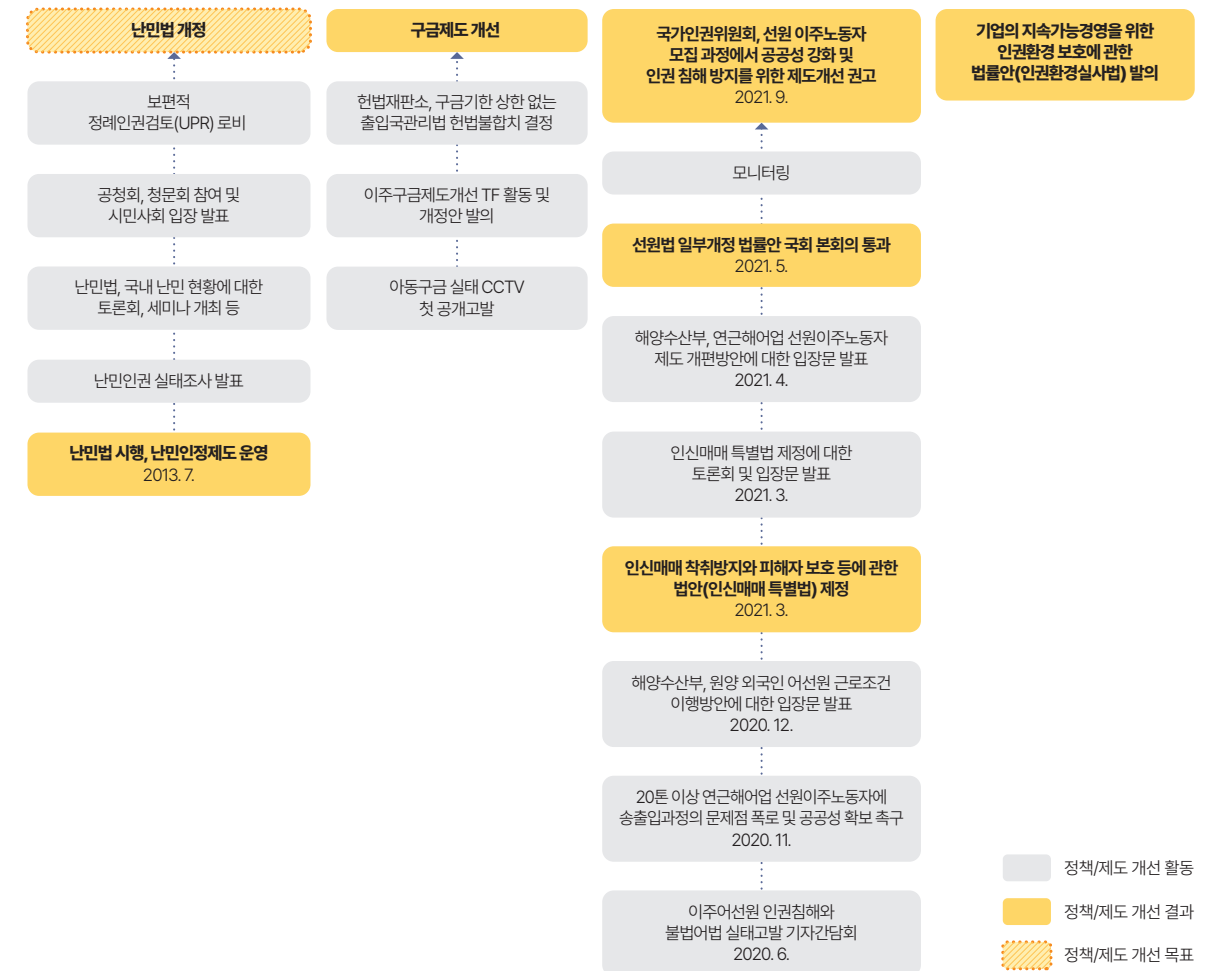
대표 연구조사 사례

연도	연구조사 명	비고
2013	•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연구
	•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	• IOM과 공동 연구
2017	• <보충적 보호 지위 및 난민인정자의 처우 실태 조사>	• RSNK 연구모임으로 참여
2020	• <누가 이들을 바다에 붙잡았나 - 한국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공동 연구
2022	• <어선원 없이 어업도 없다: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노동기준의 긴급한 필요성>	• Human Rights Now 등 5개국 시민단체와 공동 연구

□ 정책변화 및 제도 개선에 기여

법률자문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입법 운동을 통해 어필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법센터로서 더 정의로운 법과 제도 변화로 우리 사회의 공익이 커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책이 변화되고 제도가 개선되도록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옹호의 목소리를 모으는 다양한 정책활동을 하며 다음의 대표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왔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책/제도 개선 활동과 누적 성과



05 미래비전

“억울한 외국인 곁에서, 불의에 맞서, 정의를 지으며 평화를 확산”

□ 난민 법률 조력 비율의 비약적 향상: 적대에서 환대로

공익법센터 어필은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는 사회가 되도록 가장 취약한 사회의 테두리와 바깥에 있는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 외국인들의 곁에 서는 활동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어필은 그들에 대한 인식이 잠재적 범죄자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난민 인정절차가 개선되어 더 많은 난민들이 ‘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난민들이 난민인정절차에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매패워와 기반을 기반을 확충·확대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튼튼한 법률 조력의 메카로 거듭나며, 확충된 자원을 활용해 입법적 개선과 제도 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국선전담변호제도’, ‘소송구조제도’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 촉구를 보다 가열차게 펼치겠습니다. ‘경제능력과 무관하게 위험에 빠져 한국을 찾은 난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민의 법적 접근성 제고를 기대합니다.

□ 난민 처우 개선: 난민들이 마땅히 설 자리를 찾도록

난민들의 체류할 권리, 자의적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의 자유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난민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고지 받을 수 있도록 난민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언어 통·번역 풀을 구축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제도의 사각 지대에 있는 난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난민 인식 개선: 난민들이 꽃 피울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난민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평화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인식 개선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난민들에 대한 평면적인 내러티브에서 벗어나서 각 사람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특히 학생, 청년 집단에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난민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난민 협약

세계인권선언 [1948.12.10. 유엔총회 제정]	난민협약 [발효일 1993.3] [다자조약, 제1166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5조(이 협약과는 관계 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12조(개인적 지위) 제16조(재판을 받을 권리) 제17조(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제21조(주거) 제22조(공공교육) 제24조(노동법제와 사회보장) 제26조 (이동의 자유) 제27조 (신분증명서) 제31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 공익법센터 어필은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에서의 난민 보호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부록: 인터뷰

Interview: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 사회혁신조직의 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SNS, 뉴스레터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는 사회혁신조직 안과 밖에서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기획하며 만났던 혁신가들의 임팩트에 대한 생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Behind 'The Impact Report'

인터뷰이 : 공익법센터 어필 윤근휴 행정팀장

Q.

임팩트그라운드에 참여하는 사회혁신조직의 임팩트 리포트 제작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임팩트 측정 전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돌아봤을 때, 공익법센터 어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기대했던 것,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고 확인하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A.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어필을 찾아오는 눈앞의 난민과 이주민들만 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 보니, 막상 성과로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자료를 잘 정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자료가 부족한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습니다.

Q.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법률 지원으로 바쁜 와중에도 어필은 매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시고, 어필의 후원자분들께 활동 소식도 자주 공유해 왔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히 축적된 자료와 어필 크루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측정 작업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측정 작업을 해보니 어떠셨나요? 걱정했던 것처럼 어려운 작업이었나요?

A.

막상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는 그동안 정리하지 못하고 쌓아 놓기만 했던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사회가치평가 연구원분들이 만들어 주신 임팩트 맵을 통해서 어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성과로 보이는 것이 새로웠고, 성과를 보여주는 틀에 대해 배운 것이 좋았습니다.

Q.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외부 측정 기관으로서 그동안 어필이 해온 활동들을 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슈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즐겁게 일하는 어필 내부 분위기와 난민을 비롯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웰빙well-being을 바라는 변호사와 활동가님의 진심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어필의 크루들과 이야기하며 일과 동료, 사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나,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활동 등 임팩트 측정 전반의 경험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요?

A.

측정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정리해 놓고 보니 뿌듯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좀 더 모아 두었다면 더 편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이번 임팩트 측정 경험을 참고로 해서 어필의 활동 자료들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어필의 임팩트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며, 변화의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경험은 어필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가 어필이 임팩트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되어, 더 깊고 풍성한 임팩트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원 및 조직 안내

“취약한 외국인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5호(안국동, 걸스카웃빌딩)

대표전화 02-3478-0529

홈페이지 apil.or.kr